

# “다산 비결 있었네” 영광군,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 2023년 1.65명...전국 평균 두 배 이상 다양한 출산 지원책 발굴해 추진 큰 성과

영광군이 2023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해 5년 연속 1위 자리를 굳히는 성과를 거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한다.

영광군은 전국적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 1.65명을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2월28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여명에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은 0.72명, 전남은 0.97명을 기록했다.

이 중 영광군은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뛰어

넘는 1.65명을 기록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광군이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비결로는 분야별 지원 정책의 복합적인 상승 협력 작용을 꼽는다.

무엇보다 결혼·출산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세대 지원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광군은 그동안 다문화 가정과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세대 취업·창업지원과 농공단지과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

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50여 개의 지원 사업 추진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인구 정착을 이끌었다.

여기에 전남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수준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청년창업을 촉진 시키고 영유아 돌봄 공백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생동감 넘치는 영광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강종만 영광군수(가운데)가 군청 직원들과 함께 '합계출산율 5년 연속 1위 달성'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영광=서희권기자



##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및 발기인 총회' 개최

신안군은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신안군만의 맞춤형 복지사업 조성을 위해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월 28일 창립 및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발기인 12명이 참석해 초대 회장으로 확대석 신안군 복지재단 이사를 추대하고,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취지, 정

관 운영 규정 심의,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 선출 등을 의결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 신안만의 복지 사업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신안, 가고 싶은 신안'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복지 통합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 복지 안전망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무안군,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협약 체결

무안군은 지난 2월28일 관내 6개 의료기관과 고혈압·당뇨 합병증 검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의료기관은 류내과의원, 남악하나내과,

남악온누리내과, 김태원내과, 위드유 이비인후과의원, 서울안과의원으로 2024년 한 해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 입학축하금 중·고 학생까지 확대

### 초·중·고 10·20·3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4~22일 각 읍·면서 접수

영암군이 초등학교생에게 주던 입학축하금을 중·고 학생까지 확대하고, 3/4~22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초·중·고 입학축하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

올해 영암군 학교에 입학하는 초·중·고 학

생 총 987명이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카드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 중 입학 당일 영암군민이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사·군 학교에 입학한 뒤 영암으로 전학을 온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학생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입학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초등생에게 지급하던 입학축하금을 올해부터 중·고교 학생까지 확대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입학축하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061-470-2215)에서 한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분야 57개 사업, 981억원 심의·확정



함평군이 2월28일 '2024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상의 함평군수

산식품분야 57개 사업 981억 원을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은 전남도

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5년도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심의를 통해 2024년 주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번 심의회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건의사항과 농정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농업인 단체와 심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심의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심의 의결된 보조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